

“연기는 꽤 괜찮은 가짜놀이”

영화 ‘프리즌’ 서교도소 절대권력 ‘익호’ 역 한석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

“뭔가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완성은 없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구나 싶었죠 안하게 되든지 못하게 될 때까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석규는 살아오면서 느낀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풀어냈다.
 최근 서울 삼청동 인근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한석규이지만 자신의 연기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아쉬움을 표했다.
 “전에는 제가 연기하는 게 풀보지 않았어요. 눈이 뵈 때린다고 해야 하나 이제 그나마 좀 눈에 뭔가 사연이 담겨 보여요. 마흔은 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속 연기에 대해서도 “3년 정도 지나봐야 그 영화가 쓸 만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영화 ‘상의원’ 속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는 “5점짜리라고 점수를 매겼다. 자신의 영화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영화로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꼽았다.
 “이번 영화 ‘프리즌’도 3년이 지난 다음에 혼자 점수를 매겨보게 되겠죠”라고 덧붙였다.
 “젊었을 때는 뭘 해낸다는 것에 꽤 많이 정신이 팔려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별 것 아니구나 싶었죠. 나이를 먹고 주변사람의 죽음 같은 것을 보기도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뭐가 되든 말든 그건 상관 없고 계속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참 복이 많은 분이구나 싶죠”
 이번 영화 ‘프리즌’에서 교도소 인의 절대권력으로 등장하는 ‘익호’로 그는 강렬한 악인의 이미지를 발산한다.
 흔히들 강한 액션트의 사투리를 넣어 가면서 캐릭터를 완성하는 배우들이 많지만 그는 서울말을 써가면서도 충분한 캐릭터를 완성했다.
 “사투리를 쓰면서 연기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완전 서울놈이에요. 사투리를 쓰면서 연기할 때는 오히려 베를린에서 영어를 쓰면서 대사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대신에 ‘익호’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했다.
 예전에 한 과학다큐멘터리에서 본 하이에나의 세계를 떠올렸다고 했다.
 모계사회로 이뤄지는 하이에나 집단에서는 수컷이 무리에서 쫓겨나 공격당하는 일이 많은데 공격당한 뒤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이다.
 “코가 찢기고 눈알이 빠질 정도인데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무리를 찾아 나서죠. ‘저게 익호’ 그런 생각이었어요”
 당초 제목에는 ‘영원한 제국’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었다.
 한석규는 그 제목이 더 좋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회에서 ‘익호’란 인물은 계속 등장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게 나현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을 것”이라고 짚었다.
 오히려 최근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 ‘남민닥터 김사부’의 연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돌아섰다.
 “남민닥터에서는 캐릭터를 고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제가 가진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인물이지요”
 그러면서도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자신의 고민을 내비쳤다.
 과거 몸을 다쳤을 때인 2000년대 초반 ‘내가 하는 연기가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제가 가짜를 하고 있으니 상대방도 가짜요. 가짜의 액션을 받아쳐서 가짜의 리액션을 해야 하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상대방에 대한 리액션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은 더 가짜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이 ‘가짜놀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찾은 듯하다고 했다.
 가짜를 통해 진짜의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는 게 배우의 일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말해주는 것이 연기자의 역할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짜가 하는 가짜놀음이 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직업군 소위 문화예술이라는 일은 가짜만 갖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진짜를 이야기할 때 진짜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뉴시스



장수군 전국승마대회 개최 '성료'

제1회 전국생활체육승마선수협의회장배 승마대회가 최근 장수군 천천면 장수승마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과 대한승마협회가 후원하고 전국생활체육 승마선수협의회 주최로, 선수 및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필 100두를 투입, 장애물 경기 위주로 치러졌다.
 이날 총 98명의 선수가 참여해 장애물 80m(출전선수 48명) 경기에서 1위 강신원(인천시 아가타 100만원) 선수가 차지했고, 장애물 100m(출전선수 50명)에는 1위 이상동(홍성군 승마협회 150만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관계자는 “2018년 전국체전 대비 장수승마장을 전면 개보수해 전국 최고의 승마대회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륙의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손흥민 선발 출전... 토트넘, 사우샘프턴에 2-1 승리

손흥민(토트넘)이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 달성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샘프턴과의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토트넘은 17승 8무 3패(승점 59)로 선두 첼시(승점 69)와의 간격을 10점 차로 좁혔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약 74분을 소화했다. 지난 13일 밀월과의 FA컵 8강전에서 헤트트리를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사우샘프턴전에서도 골 사냥이 기대됐지만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



전북현대, FC서울 홈 경기 티켓 예매 시작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단장 백승권)이 FC서울과의 티켓 예매를 앞당겨 시작한다.
 전북현대대는 오는 4월 2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지는 FC서울과의 홈 경기 티켓 예매를 오늘 12시부터 경기당일 11시까지 인터파크를 통해 실시한다.
 평소 홈 경기 일주전에 예매를 시작했던 전북현대대는 전주종합경기장의 규모가 작아 당일 입장 관중들의 혼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티켓 예매를 이른 시일에 시작하게 됐다.
 시즌회원권 소지자를 제외한 1만 5천석의 티켓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전주종합경기장의 좌석수를 감안하면 예매를 통해 조기 매진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 전북현대와 K리그 챔피언 FC서울의 맞대결로 축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경기는 K리그를 매식 초관 관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최고의 흥행 카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